

# 『2010년 20호 '주간 심층이슈'』



# 『 일본 만화산업 최전선』

#### ○ 작성 취지

- 인기 만화 TOP50내 약 80%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는 만화는 만화 자체뿐만 아니라 **콘텐츠 재제작시 원작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음
- 예전부터, <u>인기 만화</u>를 중심으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제작되어 왔는데, 최근 일본 자국내 제 작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미국 등 일본의 만화를 원작으로 타 콘텐츠로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 일본의 인기 만화 현황과 랭킹 및 **만화원작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일본의 **만화산업 최근 동향**을 정리, 재조명해 보고자 함

※출처: 「월간 닛케이엔터테인먼트 9월호」(Nikkei BP사 발행) 등

#### ○ 작성 순서

- 1. 「최신 일본 만화 동향」
- 2. 「만화 원작 비즈니스 현황」
- 3. 「시사점」

## 1. 『최신 일본 만화 동황』

□ 「일본 만화 랭킹」

#### ○「최신 일본 단화 판매 순위」

-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인기 만화는 무엇인지를 'Oricon'(음반, DVD, 서적등 판매랭킹조사회사)이 **상반기 매출순위 조사**한 결과 1위는

#### 'ONE PIECE'

- 'ONE PIECE'는 슈에이샤(集英社)가 발행하고 있는 '주간소년 점프'에 연재하고 있는 만화로 시리즈 총 59권('10.8.4 기준)의 단행본 발행
- 2위는 '강철의 연금술사', 3위는 'NARUTO' 등 소년만화가 톱3를 차지하고 있으며, 4위 '너에게 닿기를(君に届け)', 5위 '노다메칸타빌레' 등여성만화가 뒤를 잇고 있음
- 조사기관 : ORICON(www.oricon.co.jp)
- 조사집계기간 : '09년 12월 28일~'10년 6월 27일(6개월)
- 조사협력서점수 : Amazon.com, 기노쿠니야, 산세이도 등 유명 온오프라인서점 1,717점포 (전체 매출 점유율의 약 40% 차지)
- \* 집(Shueisha), 소(Shogakukan), 강(Kodansha), 스(Square Enix), 카(Kadogawa Group Publishing)

#### <(표1) 상반기 만화 매출 TOP10>

순위	타이틀	연재잡지(출판사)	발매부수	타깃층
1	ONE PIECE	주간 소년점프(집)	2,367,836	소년
2	강철의 연금술사	월간 소년강강(스)	1,274,362	소년
3	NARUTO	주간 소년점프(집)	1,166,898	소년
4	너에게 닿기를	별책 마가렛(집)	977,543	소녀
5	노다메칸타빌레	Kiss(강)	919,300	여성
6	신세기 에반게리온	영에이스(카)	804,905	소년
7	세인트 영맨	모닝2(강)	749,828	청년
8	BLEACH	주간 소년점프(집)	742,649	소년
9	명탐정 코난	주간 소년선데이(소)	576,983	소년
10	가정교사 히트맨 REBORN!	주간 소년점프(집)	568,041	소년



#### ○「최신 일본 만화 유저 경향」

- "모두가 읽는 만화를, 모두 읽는 <u>베스트셀러 집중 경향이 현저</u>함" (후지모토 유카리(만화연구가))
- 그 이유로는 <u>①만화잡지가 줄었다</u>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만화잡지에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만화를 찾는 것 외에 **영상화, 랭킹 등 타 정보 등의 화제성에 의해 만화가 팔리고 있음**
- 그 외에, ②서점 판매의 단행본의 경우 밀봉이 되어 있어 내용 확인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는데, 인기 만화의 경우, 애니메이션 등 영상화되어 애니메이션을 본 소비자가 원작이 보고 싶어 만화를 사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기 애니메이션에서 보장이 된 만화를 사는 경향이 두드러지
- 결과적으로, 기존의 만화유저의 경우 판매 등의 랭킹 등에서 구매할 만화를 선정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영상화로 화제가 된 이후의 만화 구매자는 보다 안정적(인기 만화라는 검증)인 만화를 구매하게되는 경향이 늘고 있음

☞ TOP50 작품중 약 80%가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영상화되었거나 예정

<(표2) 상반기 만화 매출 TOP11~TOP50>

순위	타이틀	발매부수	순위	타이틀	발매부수
11	배가본드	518,388	31	다이아몬드 A	280,226
12	크게 휘두르며	503,388	32	WORST	277,417
13	으호	495,648	33	MAJOR	272,175
14	FAIRY TAIL	491,182	34	CROSS GAME	271,381
15	3월의 라이온	478,886	35	SKIP BEAT!	266,368
16	D. Gray-man	450,381	36	하야테처럼!	251,888
17	HUNTER×HUNTER	436,177	37	AIR GEAR	250,924
18	BAKUMAN	419,489	38	듀라라라!	250,018
19	흑집사	413,869	39	마법선생 네기마!	249,163
20	×××HOLiC	408,861	40	하지메의 일보	245,717
21	오란고교 호스트부	404,093	41	Saki	241,121
22	신 테니스의 왕자	392,820	42	누라리횬의 손자	240,830
23	테루마에 로마에	388,070	43	GTO SHONAN 14DAYS	238,355
24	오늘 사랑을 시작합니다	353,912	44	토리코	237,600
25	아히루의 하늘	348,911	45	치하야후루	236,414
26	SOUL EATER	348,762	46	회장님은 메이드 사마!	235,920
27	천상천하	326,534	47	GANTZ	233,323
28	나츠메 우인장	317,632	48	사랑한다고 말해	227,937
29	결계사	298,982	49	아라카와 언더 더 브리지	227,521
30	BILLY BAT	290,034	50	기동전사 건담 THE ORIGIN	225,559

## □ 「일본 만화 동향」

#### ○「최신 일본 만화 작가 동향」

- 상기랭킹 중, 2위의 '**강철의 연금술사(아라카와 히로시)**'를 필두로, 7위 '세인트 영맨(나카무라 히카루)', 12위 '크게 휘두르며(히구치 아사)' 등 소년/청년 만화잡지에 연재하고 있지만, 작가들은 모두 여성
- 이렇게 <u>소년/청년지에 만화를 연재하는 여성작가</u>가 늘고 있으며, 만화 독자 또한 여성만화에 남성팬, 남성만화 여성팬의 교류경향 강화
- 영상화된 만화는 그**만큼 인기도 높은 편**인데, 7위의 '세인트 영맨'의 경우는 <u>입소문으로 알려진 코믹만화</u>이며, 23위 '테루마에 로마에', 45위 '치하야후루'는 '09년도 **만화상 대**상 수상작으로 **열성팬들의 평가**를 계기로 알려진 작품들임

- 15위의 '3월의 라이온'은 '허니와 클로버(우미노 치카)'의 인기를 얻은 <u>작가 고정팬들이 차기 작품 구매</u>로 이어진 전형적인 '작가구매'라고 할 수 있음
- 이렇듯 영상화 이외의 작품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어 인기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차별화된 인기 만화로의 작품이나 작가의 역량은 필요 로 하고 있음

#### ○「인기 만화 잡지 동향」

- 만화잡지 중, 일본도 많이 폐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만화 단행본의 작품을 게재하고 있는 잡지 순위를 보면, TOP100 중에서 14개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주간 소년점프(Shueisha)'가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 주간 소년점프 : 매주 300만부를 발행



<(표3) 만화잡지 파워 랭킹>

순위	잡지명	인기작품 게재수
1	주간 소년점프(슈에이샤)	14
2	주간 소년매거진(코단샤)	8
3	주간 소년선데이(쇼가쿠칸)	6
4	월간 소년강강(스퀘어에닉스)	4
4	점프스퀘어(슈에이샤)	4
4	모닝(코단샤)	4
7	월간 코러스(슈에이샤)	3
7	월간 G판타지(스퀘어에닉스)	3
7	주간 영점프(슈에이샤)	3
7	꽃과 꿈(花とゆめ(학센샤))	3
7	영에이스(카도카와쇼텐)	3
7	영강강(스퀘어에닉스)	3
7	LaLa(학센샤)	3

<sup>※</sup> Oricon랭킹 2010년 상반기 TOP100에 들어간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잡지별 카운트(동일 작품이 복수 랭크인 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1작품으로 계산)

#### □ 「기타 일본 만화관련 동향」

#### ○「만화의 날」

- 일본은 일본만화가협회, 만화전문출판사들이 만화를 '문화'로 인정받기 위하여 11월 3일을 '만화의 날'로 제정
- 11월 3일은 '일본 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츠카 오사무'가 태어 난 날임
  - ※ 그 외에 <u>7월 17일</u>을 '만화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은 세계 최초로 영국의 만화잡지 '번치' 가 발행된 날(1841년)임

## ○「후세에 낞기고 싶은 만화 TOP10」

- 작년도 7월 17일 '만화의 날'을 기념하여 Oricon이 10대~30대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후세에 남기고 싶은 만화 TOP10을 조사 발표하였는데, 1위는 'SLAM DUNK'였음

○ 조사기관 : ORICON(www.oricon.co.jp)

ㅇ 조사기간 : '09년 4월 20일~'09년 4월 24일

○ 조사대상 : 10대, 20대, 30대 남녀 각 150명, 합계 900명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

## <(표4) 후세에 남기고 싶은 만화 TOP10>

순위	작품명	작가명	출판사명
1	SLAM DUNK	이노우에 다케히코	슈에이샤
2	ONE PIECE	오다 에이치로	슈에이샤
3	드래곤볼	도리야마 아키라	슈에이샤
4	도라에몽	후지코 F 후지오	쇼가쿠칸
5	사자에상	하세가와 마치코	아사히신문출판
6	명탐정 코난	아오야마 고쇼	쇼가쿠칸
7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	아키모토 오사무	슈에이샤
8	마루코는 아홉살	사쿠라 모모코	슈에이샤
9	강철의 연금술사	아라카와 히로시	스퀘어에닉스
10	꽃보다 남자	카미오 요코	슈에이샤

<sup>☞</sup> Oricon Life 사이트 참조(http://life-cdn.oricon.co.jp/news/67730.html#rk)

#### 2. 『만화 원작 비즈니스 현황』

#### □ 「만화원작의 영상화」

#### ○「만화원작으로의 유혹」

- 올 해 만화를 원작으로 개봉된 영화작품은 '피안도(마츠모토 코지)', '소라 닌(아사노 이니오)', '노다메칸타빌레 최종악장(니노미야 도모코)' 등 신 구 장르를 불문하고 영상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
- **만화를 원작으로 영상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만화팬의 동원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이며, 창작 작품보다는 이미 작품성에 대하여 알려져 있다는 점은 강점임
- 또 한 가지 이유로는 ②출판사 입장에서 독자층의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만화는 게재잡지에 의해 어느 정도 팬은 확보되지만, 타 매체로의 영상화는 **큰 화제**가 되어 새로운 만화팬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쉽게 만화를 원작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음
  - ☞ 드라마 'JIN-仁-'의 히트로 만화를 읽지 않았던 중장년층에까지 만화 보급 확대
  - ☞ 여성만화잡지에 연재되었던 '노다메칸타빌레'는 드라마, 영화를 계기로 남성 독자가 확대되었음

## ○「영상 or 원작에서 선별」

-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미야자키 아오이' 주연으로 주목받았던 '소라닌' 은 영화 프로모션으로 화제가 되며, 공개 직전에는 원작 만화의 판매가

- 피크였으며, '건달군과 안경양'의 경우는 드라마 방영과 더불어 원작이 팔리기 시작했으며, 연속드라마 원작이었던 '모테키'는 만화팬들이 뽑는 만화상에 노미네이트되었던 화제작으로 잡지연재는 4월에 끝났으나, 드라마 공개로 다시 작품이 많이 팔리게 된 케이스임
- 이렇게 원작 만화와 영상화된 작품의 상승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팬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배우가 만화의 캐릭터와 맞지 않아 실패한 작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20세기소년',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처럼 원작의 캐릭터대로 영상화한 작품이 증가하는 추세임
- 9월 공개예정인 영화 'BECK'는 원작에 가장 충실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연주장면이나 악기 등이 만화원작 묘사를 리얼하게 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복장이나 신발 등 소품까지 원작과 똑같은 소도구를 준비 원작을 그대로 살리고 있음
- 10월부터 NHK교육방송에서 방영예정인 애니메이션 '<u>바쿠만</u>'도 **원작의** 사실성에 고집하며 충실히 제작하고 있는 상황임
- 영상화되는 작품에 대해서는 만화를 먼저 볼 것인지, 영상을 먼저 볼 건이지 논의가 양분화되고 있지만 **적어도 영상화되는 작품은 만화의 재 미와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음

<(표5) 최신 영상화된 원작 만화 일람>

장르		작품명	공개(방영)시기	배급/방송
	영화	BECK	9/4	쇼치쿠
		너에게 닿기를	9/25	도호
		오오쿠	10/1	아스믹에이스
		우미자루	9/18	도호
	7	GANTZ	'11년 1월 예정	도호
실		악(岳)	'11년중 공개	도호
사		도박묵시록 카이지	' <b>11</b> 년중 공개	도호
화	드라마	도망변호사 나리타 마코토	방송중/매주 화 22:00~	후지TV
		호타루노히카리	방송중/매주 수 22:00~	닛폰TV
		모야시몬	방송중/매주 목 00:45~	후지TV
		해머 세션!	방송중/매주 토 19:56~	TBS
	_'	모테키	방송중/매주 금 00:12~	TV TOKYO
		일본인이 모르는 일본어	방송중/매주 목 23:58~	닛폰TV
0	Н	흑집사	방송중	TBS
Ч		쓰리몬	방송중	TOKYO MX

	학생회 임원들	방송중	치바TV
	세키레이	방송중	TOKYO MX
	학원묵시록 HIGHSCHOOL OF THE DEAD	방송중	токуо мх
메	누라리횬의 손자	방송중	TOKYO MX
이 션	시귀(屍鬼)	방송중	후지TV
	해파리 공주	연내 방송 예정	후지TV
	BAKUMAN	'10년 10월부터 방송	NHK교육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가을 방송 예정	TBS/BS TBS
	신만이 아는 세계	제작진행중	미정

#### □ 「주요 만화원작 분석」

## ○「**오오쿠(**大奥)」

- 만화 '오오쿠(요시나가 후미)'는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젊은 남자가 여자의 1/4로 줄어든 허구의 상황에서, 여장군이 3,000명의 젊은 남성을 거느리는 '오오쿠'를 그려 인기를 얻음
- 주 독자층은 여성층이며, 20~30대 여성이 압도적임
- 격월지 'MELODY'(학센샤)에 연재중이며, 총 5권의 단행본 발행
- 동명의 TV드라마는 전혀 다른 원작이며, 만화를 원작으로 올 10월에 영화가 개봉될 예정



## OFBAKUMAN

- 만화 'BAKUMAN' 은 중학교 3학년생을 주인공으로 같은 반의 수재인 친구로부터 콤비를 구성 만화를 그려보자는 제안을 받아, 프로만화가를

꿈꾸며 만화가 데뷔에서 성장까지를 그린 만화로 NHK교육방송이 애니메이션 제작 주도 10월 방영 예정

- 주 독자층은 남성이 많지만, 10대~20대 남녀층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음
- '주간 소년점프'(슈에이샤)에 연재중이며, 총 9권의 단행본 발행



#### o BECK \_

- 만화 'BECK'는 평범한 생활을 하던 주인공 소년이 귀국자녀의 천재기 타리스트를 만나 기타, 음악 등에 자각하게 되며, 친구에 의해 천성적 인 보컬재능을 보이게 되면서 친구들과 5인조 밴드를 구성, 악전고투하 면서 성장해 가는 청춘만화
- 주 **독자층은 10대~20대 남성층**이 압도적이며, 영화에서는 미남배우 5명 이 출연하는 관계로 여성독자층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주간 소년매거진'(코단샤)에 연재 완료된 작품으로, 총 34권의 단행본 발행
- '04년~'05년 애니메이션화 되었으며, '10년 9월 영화로도 발표



## 3. 『시사점』

- 일본에서는 많은 만화들이 연재되는 가운데, 연재 경쟁이 심한 3대 만화 출판사의 만화잡지 연재만화가 여전히 강세
- 특히 여전히 많은 작품이 범람하는 가운데, 하나의 이슈(영상화)가 되는 작품에 만화팬들이 집중하고 있어, 인기몰이를 하는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과의 양극화가 심한 편임
- 방송사나 영화사에서도 어느 정도 <u>확보된 만화팬들을 영상화 작품(드라 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유도</u>하기 위해서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사 또한 영상화를 통해 <u>만화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u>는 점에서 만화 원작으로 한 영상화 추세는 변함없이 진행될 전망임.
- 권리문제에 있어서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제작측에 만화를 이용하기 위한 권리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꽃보다 남자', '공부의 신'등 일 본 원작을 이용하여 일본에 역수출하는 작품들이 <u>현지에 쉽게 유입될 수</u>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함
- 한국에서의 만화연재가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 한국 만화를 붐업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u>일본식 콘텐츠 제작방법도 적극 고려해 볼 문제이며</u>, 일 본의 인기만화는 작가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국내 만 화출판업계에 **우수한 편집인재 확보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임**.